

풍자소설 번역에서의 결텍스트 기능 및 특징: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농장』을 중심으로

한 미 선
(이화여대)

1. 서론

풍자소설은 알레고리를 통한 현실세대 비판이라는 작가의 메시지 및 집필 의도가 명징한 문학양식이다. 원저자는 독자들이 알레고리가 표상하는 현실세계의 원관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지하리라는 전제 하에서 작품을 집필하고 출간하여 독자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그런데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기본 전제는 원저자와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공유하는 원천문화의 독자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원천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결텍스트들이 풍자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에 함의하는 바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더 크다. 엄밀히 말해서 저자가 직접 생산한 본문은 아니지만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의 일부로서 저자와 독자, 허구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결

텍스트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저자가 원천문화의 독자에게 기대했던 전제가 목표문화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풍자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서 저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본적 전제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본문이 아닌 부수적인 텍스트인 곁텍스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정치 풍자소설로 꼽히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1726)』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Animal Farm* 1945)』 번역본들에서의 곁텍스트들의 활용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풍자소설의 원저자가 수립한 기본전제가 유효하지 않은 목표문화의 상황을 보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중재 장치로 곁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풍자문학의 정의 및 특징

‘풍자’란 사전적으로 정치적 현실과 세상 풍조, 기타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의 결함·악폐(惡弊)·불합리·우열(愚劣)·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적 또는 조소적(嘲笑的)인 발언을 뜻한다.¹⁾ 암스트롱(Armstrong 1985)은 풍자를 “조소나 조롱을 통해 비판하는 기술로 욕설, 아이러니, 유머, 과장된 익살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한다²⁾”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풍자의 기술을 문학양식으로 활용한 것이 풍자문학 또는 풍자소설이다.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서 저자가 갖는 조롱·멸시·분노·증오의 감정을 풍자,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하며 나아가 교정을 유도하는 문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두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

2) Satire is the art of criticising through ridicule or contempt and it makes use of many devices - invective, irony, the comic, the burlesque - to control its tone and therefore, the point of view(Armstrong 1985: 11).

김윤식(1968; 최혜실 1986: 227에서 재인용)은 “작가가 현상내부에 인식한 질서를 그것이 발생한 현상과는 별개의 질서를 가진 현상 속에 둘 때, 독자가 그 주어진 앞의 현실을 인식할 것이라는 예정 하에 그 현실을 비판하면서 쓰인 작품”을 풍자소설로 정의하였다. 나병철(1998: 287)은 풍자소설의 세대 비판 방식에 대해 “현실을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과장, 왜곡, 비꼬 등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풍자소설은 알레고리³⁾, 즉 다른 것을 통해 본질을 말하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저자의 집필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장르이다. 알레고리란 서술방식의 하나로 사건이나 인물이 상징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의미는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 서술 방식에 의해서 전달된다. 결국, 직접적인 표현방식이 아닌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풍자소설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서술 방식이 아닌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공감시키기 위해서 독자가 자신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통제된 톤으로 서사 방식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1985: 12)은 분노에 찬 저자의 비판을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서술 할 경우 독자에게 부담감이나 반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서술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풍자소설에서 전통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동물을 활용한 우화 풍자이다. 동물을 풍자에 활용하는 이유는 동물을 활용해 인간의 행동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Calder 1987: 6). 동물 알레고리를 활용해 현실 세태를 풍자한 가장 대표적인 소설로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꼽을 수 있다.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 거인국, 날아다니는 섬 나라, 이성적인 말의 나라, 등을 통해 인간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풍자하며, 『동물농장』 역시 동물들의 알레고리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출판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원천문화와 정치사회적 배경이 다른 목표문화에서 알레고리를 통해 현실세

3) Allegory is a narrative in which events or people are presented symbolically so that a deeper meaning is carried by the narrative than the story it seems to be telling. Allegory is often used to teach a moral lesson(Armstrong 1985: 14)

계를 이야기 속 허구 세계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풍자소설을 번역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 및 계몽이 풍자문학의 본질이다. 따라서 특정 풍자소설이 생산된 원천문화에서 원저자는 자신의 예상 독자들이 이야기 속 허구의 세계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공간은 물론 시간적 상이함이 존재하는 목표문화에서 원천 텍스트만을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원저자의 의도, 즉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원천문화와 목표문화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풍자소설을 읽는 목표문화의 독자가 텍스트 내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문화 사이의 괴리감이 클수록, 본문만을 읽고 독자 스스로 소설 속에 사용된 알레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는 이미 언급한 대로 원천 텍스트의 독자가 갖고 있는 현실세태라는 공유정보가 목표 텍스트의 독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문학 번역은 흔히 ‘등가’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한다고 한 노드(Nord 1997: 88)의 말처럼, 원천문화와 목표문화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원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존재한다. 1726년에 출간된 『걸리버 여행기』, 1945년에 출간된 『동물농장』의 원천 텍스트와 번역본인 목표 텍스트들 사이에는 짧게는 70년, 길게는 280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대의 목표문화 독자가 각 작품의 원저자가 비틀고자 했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야기 속에 나타난 허구의 세계를 그저 허구로만 치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풍자소설의 원천 텍스트가 목표문화 내에서 등가의 텍스트로서 온전히 수용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목표문화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전제를 보완해 줄 대체물, 즉 원저자와 목표문화의 독자를 중재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2.2 결텍스트의 정의와 기능

연구자는 이러한 중재의 기능을 결텍스트(paratext)가 담당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라드 주네트(Genette 1987; 지영래 · 박선희 2010에서 재인용)

는 문학작품이라는 대상은 작품의 순수한 텍스트와 더불어 그 가장자리에 걸다리로 붙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저자명, 책제목, 서문, 삽화, 표지에 쓰인 글, 띠지에 쓰인 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텍스트를 둘러싸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그것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결텍스트4)”라 명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네트가 논의하고 있는 결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에만 국한된 개념이다. 이에 지영래와 박선희(2010)는 결텍스트의 개념을 번역본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번역된 텍스트가 목표문화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로서 위상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물리적으로 한편의 책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텍스트의 총체성 측면에서 이들 연구자의 제안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⁵⁾ 사무엘 킨저(Kinsler 1990: 17)에 따르면 결텍스트란 텍스트의 틀을 형성하는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텍스트들을 통해서 맥락이 어떻게 텍스트에 침투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결텍스트란 텍스트의 총체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내용은 아니나 문학작품을 관통하는 모든 동반텍스트들을 일컫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본문 텍스트와 함께 소설의 물리적 경계를 이루는 결텍스트가 텍스트의 일부로서 수행하는 기능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일별해보기로 하겠다. 신세니·안지성(2012)은 포스트모던 그림책 번역에서 파라텍스트 변형이 어린이 독자들의 반응, 즉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보다 풍부한 이야기와 논의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다. 지영래, 박선희(2010: 260) 또한 『마담 보바리』번역본의 결텍스트 유형을 시대별로 비교·분석하면서 1980년대 작품 해설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사진들을 간단한 정보와 더불어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작품 이해를 돕는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대 중기

4) 주네트는 결텍스트를 공간적 특성에 따라 “주변텍스트(peritext)”와 “후텍스트(epitext)”로 구분한다. “주변텍스트”는 원천텍스트와 공간적으로 같은 책속에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편집과 관련된 요소들, 즉 저자명, 헌사, 제사, 서문 및 각주 등의 요소를 말한다며, “후텍스트”는 책을 둘러싸고 있는 있지만 책 자체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요소들, 예를 들자면 저자와의 인터뷰나 그의 편지, 일기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지영래, 박선희 2010: 250).

5)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의미하는 결텍스트는 원문의 결텍스트와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어휘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놓는다.

에 출판된 소설책을 대상으로 외형적 특징과 결텍스트적 요소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한 최수경(2012) 또한 삽화나 평점(評點)과 같은 결텍스트가 본문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본문의 독서를 돕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다. 마커스 아펠과 바바라 말렉카(Appel and Maleckar 2012) 역시 결텍스트적인 정보가 스토리의 신빙성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독자의 읽기 경험이 책표지에 인쇄된 ‘소설’이라는 라벨은 물론 책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다른 정보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매리 맥클린(Maclean 1991: 278)에 따르면 결텍스트는 저자가 책의 집필 의도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메시지의 발신자로서 수신자인 독자에게 말을 거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결국, 결텍스트는 물리적 형태의 소설이라는 텍스트를 구성하며 비록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독서에 그리고 나아가 텍스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결텍스트를 접한 독자의 읽기 경험이 특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Kim Shinhee(2008)는 결텍스트로 사용된 서문, 원문의 해석, 작가의 삶, 작가의 작품세계 등이 하나의 ‘틀(frame)’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틀의 개념은 어빙 고프만(Goffman, 1986)이 『Frame Analysis』에서 주창한 것으로 틀이 외부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을 조직화하므로 특정 현상을 사진틀과 같은 틀에 넣으면 의미 없는 현상이나 장면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순미는 번역에서는 결텍스트를 통한 프레임링(framing)이 가능하다고 말한다(2013: 73).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넬슨(Nelson 1998)은 결텍스트에 해당하는 서문(머리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텍스트를 만날 수 있게 독자를 준비시켜주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목적, 즉 의도를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독자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를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는 결텍스트가 하나의 경계로서 특정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예를 들어, 작가의 성향이나 해당 작품이 출판될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과 해당 텍스트와 텍스트의 생산자인 저자 그리고 독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결텍스트가 상기한 중재의 순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영래,

박선희(2010: 259, 264)는 『마담 보파리』의 번역에서 문화적 종교적 거리뿐만 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의 시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석이나 작품해설과 같은 결텍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나 독자 스스로 작품을 흡수하고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세니, 안지성(2012: 90) 역시 결텍스트를 통해서 ‘줄거리와 기법을 소개하고 작가의 의도 및 예상 가능한 독자들의 반응을 단정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의 폭을 한정’시키는 위험성 또한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풍자소설의 특징은 현실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활용해 원관념을 설명하는 알레고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실세태를 비판하는 저자의 의도가 비유적인 대상물을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풍자소설은 다른 문학형식과 다르게 저자의 집필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때문에 풍자소설을 읽는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감안하면서 읽기를 수행하므로 해석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이외의 소설문학에서는 허구 속에 구체화된 세상과 독자가 속한 현실 세계를 중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열린 해석이 가능하며 독자 개개인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독서의 결과, 즉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풍자소설의 경우, 원천문화의 독자들과 저자는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풍자된 허구의 현실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목표문화로 건너오면 이러한 공유지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번역본의 경우 사라진 공유지식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결텍스트가 독자의 채워기를 한정하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텍스트가 풍자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서는 보조관념 뒤에 숨겨진 저자의 메시지를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출판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풍자소설은 1726년 출간된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와 1945년 출간된 『동물농장』으로 현실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한 대표적인 정치 풍자소설이다. 우화 형식을 빌어서 현실 세태를 풍자한다는 것과 출간 당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출판이 쉽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 작품들이므로 독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목표문화 내에서 원저자의 메시지, 즉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결텍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고찰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출간된 작품 중 가능한 여러 판본을 대조해 보기 위해 『걸리버 여행기』 8권과 『동물농장』 9권을 선정했다.⁶⁾ 대상 자료 선정 시, 아동을 예상독자로 상정하고 출간한 도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걸리버 여행기나 동물농장 모두 우화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아동용 동화로 출간되거나 특정 부분만을 발췌하여 출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우화소설의 경우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독자가 다를 경우, 저자의 의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발신자의 의도와 이를 수용하려는 독자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결텍스트의 활용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여건 하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동용 도서로 출간된 작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2 분석방법

풍자소설의 경우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의 독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공유정보가 다르므로 독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걸리버 여행기』 번역본 8권과 『동물농장』 9권에 존재하는 결텍스트를 원본의 결텍스트와 번역본의 결텍스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제목이나 띠지의 경우 별다른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분석을 위한 결텍스트 범위에 포함

6) 분석 대상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분석결과 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시키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두 소설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 풍자소설로서, 현실 비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저자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지닌다. 우화 형식이므로 원관념이 감춰져 있고 보조관념만 겉으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간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원천문화에서 출간된 원문의 결텍스트와 그렇지 못한 목표문화에서 출간된 번역본의 결텍스트의 유형들을 고찰하고, 저자의 의도, 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원문 결텍스트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뒤이어 번역본결텍스트의 유형과 특징을 기술하기로 한다. 각 번역본의 결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두 소설의 원저자가 밝힌 작품의 집필 의도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결텍스트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4.1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농장』의 원문 결텍스트

앞서 언급한 대로 풍자 우화의 형식을 취한 『걸리버 여행기』의 경우,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는 제4부 말들의 나라(후이눔의 나라), 제1 장에서 이 작품의 집필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지어 유명한 2012년 번역본에서는 “이 책의 집필의도”라는 원문에 없는 소제목 항목까지 두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전략) 어디까지나 진실을 전하고자 한 것이지 흥밋거리를 제공하려던 것이 아니다. (중략) 탐험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고 여러 나라에서 체험한 장점과 단점을 본보기 삼아 정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중략) 앞서 밝혔듯이 위대한 후이눔들의 훌륭한 미덕을 접한다면 (특히 이성을 가진 이 나라의 지배자라고 자처하는 동물들은) 악덕한 자신의 모

습에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같은 야후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이를테면, 브롭딩낙처럼 악덕과 부정부패를 모르는 그들의 도덕과 정치에 대한 격언을 지킨다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긴말은 하지 않겠다. 그저 현명하신 독자들께서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해주었으면 한다.”(유영 옮김 2012: 329-330)

조나단 스유프트의 집필 의도는 원문 결텍스트인 ‘걸리버가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전부 제시하기에는 지면상의 제약이 따르므로 분석 대상 번역본에 제시된 주석을 통해 편지의 요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 편지의 주인공 걸리버가 네 번에 걸친 여행을 모두 마치고 난 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은거 생활을 하면서 가상의 사촌이자 출판업자인 심슨에게 보낸 편지이다. 따라서 모든 여행을 마치고 난 후 인간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된 걸리버의 냉소적인 시각이 이 편지의 주된 어조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걸리버는 편지 속에서 인간을 호칭할 때 자신이 네 번째로 여행했던 후이넘국(마인국)에서 보고 온 동물 ‘야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우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작품 속 내용들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언급한 뒤,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인간들의 악행과 우행을 깨우쳐 주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가 실천되지 못하고, 인간 사회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인류 혐오적인 시각으로 개탄한다.” (류경희 옮김 2003: 5)

스유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인류를 계몽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가장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펜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유영 옮김 2012: 331). 단순히 즐거움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글을 썼으나 그러한 바람이 현실화 되지 않자 인간에 대한 실망과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분석대상 소설로서 스유프트의 뒤를 잇는 뛰어난 풍자소설가로 평가 받고 있는 『동물농장』의 저자 조지 오웰은 이 작품의 집필 의도를 아래 제시한 서문⁷⁾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7) 이 서문은 뉴욕타임즈 1972년 10월 8일자에 전문에 게재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전략) 이제 본인은 그것을 출판하는 것이 매우 무분별한 행위로 생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화가 일반적인 독재자 또는 독재권에 대한 것이라면 출판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보건대, 그 우화는 아주 완벽하게 소련의 소비에트 정권 전개 과정과 그들의 두 독재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그것은 오직 소련에만 적용될 뿐 다른 독재자는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우화의 지배 계급이 돼지가 아니었다면 불쾌감은 덜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지배계급으로 돼지를 선택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웬만큼 예민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며, 소련 국민도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김병익 옮김 1972)⁸⁾

원래 조지오웰은 이 소설의 원고를 네 개 출판사에 보냈으나 모두 다 출판 거절 의사를 전해왔으며, 이 중 한곳에서 상기의 발췌문이 담긴 출판 불가의 사유를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 서한의 내용에 따르면 당대인들이 이 소설을 읽을 경우, 풍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영국은 소비에트와 우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조지오웰은 아래 제시된 발췌문의 본체인

을 위한 미발표 원고이다. 잘 알다시피 1945년에 출판된 『동물농장』에는 아무런 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가 그 책을 위해 서문을 썼다는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았다...(전략) 그러나 사정은 여하튼 간에 이 서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동물농장』을 발표할 즈음의 영국의 정신풍토-지식인과 자유주의, 우방으로서의 소련과 독재 체제로서의 소비에트, 신문과 정치, 창작과 문학의 정치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과 인텔리겐치아의 오도에 대한 갈등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서문의 원제나 <뉴욕 타임즈>의 수록 제목은 “The Freedom of Press”이다(김병익 역, 1972, 1999: 19)

- 8) “... I can see now that it might be regarded as something which it was highly ill-advised to publish at the present time. If the fable were addressed generally to dictators and dictatorships at large then publication would be all right, but the fable does follow, as I see now, so completely the progress of the Russian Soviets and their two dictators, that it can apply only to Russia,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dictatorships. Another thing: it would be less offensive if the predominant caste in the fable were not pigs[*]. I think the choice of pigs as the ruling caste will no doubt give offence to many people, and particularly to anyone who is a bit touchy, as undoubtedly the Russians are.” (from excerpted from The Preface to Animal Farm) 밑줄은 강조를 위해 연구자가 취한 행위임을 밝혀놓는다.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라는 에세이를 통해서도 이 소설의 집필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스페인 전쟁과 1936-1937년의 기타 사건들은 정세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았고 그 이후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1936년 이후 내가 진지하게 쓴 작품들은 그 한 줄 한 줄이 모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씌어졌다...(중략)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이 되게 하는 일이었다(도정일 옮김 1998: 141)⁹⁾

조지 오웰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익히 알려진 대로 스페인 내전을 목격한 이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행동에 옮겼다. 그는 전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글을 썼으며, 글을 쓰는 동기로 꼽은 네 가지, 즉 순전한 이기심, 심미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이 가장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 바로 『동물농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 우화의 형식을 취한 이 작품이 당시의 정치상황을 빗대어 비판한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자명해진다.¹⁰⁾

이렇듯 저자의 의도가 분명한 풍자소설이기 때문에 『걸리버 여행기』의 번역본의 경우, 1956년 정병조의 번역본과 2012년 유영의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번역본 모두에서 원문의 결텍스트인 “걸리버가 사촌 심슨에게 보낸 편

9) “The Spanish war and other events in 1936-37 turned the scale and thereafter I knew where I stood. Every line of serious work that I have written since 1936 has been written, directly or indirectly, against totalitarianism and for democratic socialism, as I understand it.” (Excerpted from “Why I write” at http://orwell.ru/library/essays/wiw/english/e_wiw)

10) “Animal Farm was the first book in which I tried, with full consciousness of what I was doing, to fuse political purpose and artistic purpose into one whole. I have not written a novel for seven years, but I hope to write another fairly soon. It is bound to be a failure, every book is a failure, but I do know with some clarity what kind of book I want to write.”(Excerpted from “Why I write” at http://orwell.ru/library/essays/wiw/english/e_wiw)

지”를 그대로 수록하여 그 의도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꽤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걸리버 여행기』 번역본들이 원문의 결텍스트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저자의 집필 의도 및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걸리버 여행기』의 원문 결텍스트

분석 대상	원문 결텍스트 (in the Original)
정병조(1956)/한일문화사	· 주석
신현철(1992)/문학수첩	· 발행자가 독자에게 · 선장 걸리버로부터의 편지
박정미(1993)/청목사	· 피넨이의 말 · 걸리버 선장으로부터의 편지 (그의 사촌 심슨에게)
송낙헌(1999)/서울대학교 출판부	· 걸리버 선장이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출판인이 독자에게
이동진(2001)/해누리	· 최초의 발행인 리처드 심슨의 머리말 · 머리말 원문 · 걸리버 선장이 조카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편지 원문
류경희(2003)/미래사	· 걸리버가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출판업자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권지현(2005)/주변인의 길	· 걸리버 선장이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발행인이 독자에게
유영(2012)/동서문화사	· 피넨이가 독자에게 드리는 글

『걸리버 여행기』의 원문에 포함된 저자의 서한은 이 서한을 받은 개인은 물론 궁극적인 독자들에게 대해 결텍스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저자 자신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즉 집필 의도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Genette 1987: 373) 일례로 조나단 스위프트가 당대 시인 알렉산더 포프에게 보낸 서한¹¹⁾이 이를 뒷받침한다(아래 발췌문은 1999년 송낙헌 번역본의 작품 해설에 수록된 것이다).

11) 주네트의 분류에 따르면 ‘후텍스트(epitext)’의 범주에 해당한다.

“(전략) 나는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animal rationale)’이라는 정의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그것은 다만 ‘이성의 능력이 있는 동물(rationis capax)’이라고 논증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 거대한 인간혐오의 바탕 위에 나의 『걸리버 여행기』라는 건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모든 정직한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찬동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도 당장 이 생각을 수용하고, 나의 존경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이후 생략).”(송낙헌 옮김 1999: 361)

한편,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편의 『동물농장』 번역본들 중 총 5편의 번역본에서 원저자인 조지오웰의 서문이나 에세이와 같은 원문의 결텍스트들을 번역된 출판물에서 그대로 활용하여 독자의 읽기 경험이 특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동물 농장』의 원문 결텍스트

분석 대상	원문 결텍스트 (in the Original)
정병조(1956)/한일문화사	· 주석
신현철(1992)/문학수첩	· 발행자가 독자에게 · 선장 걸리버로부터의 편지
박정미(1993)/청목사	· 퍼낸이의 말 · 걸리버 선장으로부터의 편지 (그의 사촌 심슨에게)
송낙헌(1999)/서울대학교 출판부	· 걸리버 선장이 사촌 심프슨에게 보내는 편지 · 출판인이 독자에게
이동진(2001)/해누리	· 최초의 발행인 리처드 심슨의 머리말 · 머리말 원문 · 걸리버 선장이 조카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편지 원문
류경희(2003)/미래사	· 걸리버가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출판업자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권지현(2005)/주변인의 길	· 걸리버 선장이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 발행인이 독자에게
유영(2012)/동서문화사	· 퍼낸이가 독자에게 드리는 글

원문 결텍스트로서 작가가 직접 작성한 서문의 주된 기능은 독자들에게 해당 텍스트가 제대로 읽히도록 하는 것이다(Genette 1987: 197). 『동물농장』의 경우, 전체주의의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작품을 집필한 저자의 의도가 이러한 서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스마이어(Smyer 1988: 11)는 “저자의 의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작가 서문으로는 우크라이나판 작가 서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박경서의 2006년 번역본과 최희섭의 2008년 번역본에는 해당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이 출간된 지 2년 뒤인 1947년에 작성된 이 서문에 의하면 그의 집필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1940년대 조셉 스탈린 체제 하의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서구세계인들의 환상을 깨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동기가 그것이다. 두 번째 동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식으로 정의된 사회주의 범주 안에 민주적 사회주의가 흡수되어 세력을 잃은 서구 사회주의 운동이 되살아나는 데 도움을 주는 불행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Smyer 1988: 12)

주네트가 밝힌 대로 서문의 기능은 작가가 독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1987: 209). 결국 서문은 독자가 경험하게 될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이어주는 중재의 공간인 셈이다.

4.2 번역문의 결텍스트

김윤식(1968; 최혜실 1986: 227에서 재인용)과 나병철(1998)의 풍자소설에 대한 정의대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간접적으로 묘사된 현실이 무엇을 함축하는지를 직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즉 전제 하에서 글을 쓴다. 이와 같은 전제는 저자와 동시대의 독자들, 즉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원천문화의 독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원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결텍스트들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애초에 의도했던 ‘중재’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불가능한 목표문화에서 번역본을 생산하는 주체들—번역자나 출판업자들—은 원문에 없는 추가적인 결텍스트들로 책을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원문의 저자, 허구의 현실을 통해서 투영하고자 했던 당시의 현실세계, 그리고 목표문화의 독자를 중재한다. 번

역시 원문과 다른 목표문화의 시간, 공간, 독자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카타리나 라이스(Reiss 2000: 71-82)의 주장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제시된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걸리버 여행기』는 1956년 정병조의 번역본과 『동물농장』은 2008년 최희섭의 번역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번역본에서 애초 원천문화에서 해당 작품이 출판됐을 당시에는 없었던 곁텍스트들을 추가하여 번역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는 풍자소설의 출판 주체들이 원문의 곁텍스트와 더불어 번역본에 새로운 곁텍스트들을 추가하여 부족한 공유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 『걸리버 여행기』의 번역본 곁텍스트

분석 대상	번역본 곁텍스트 (in the Translation)
정병조(1956)/한일문화사	· 없음
신현철(1992)/문학수첩	· 작품 해설
박정미(1993)/청목사	· 작품 해설 및 저자 소개
송낙헌(1999)/서울대학교 출판부	· 역자 서문 · 작품해설 · 조나단 스유프트 연보
이동진(2001)/해누리	· 조나단 스유프트의 생애와 작품
류경희(2003)/미래사	· 역자 후기 · 작가 연보
권지현(2005)/주변인의 길	· 조나단 스유프트
유영(2012)/동서문화사	· 스유프트의 생애와 작품 · 스유프트 연보

〈표4〉 『동물 농장』의 번역본 곁텍스트

분석 대상	번역본 곁텍스트 (paratexts in the Translation)
김병익 (1972, 1999)/문예출판사	· 옮긴이의 말 · 조지오웰의 생애와 작품세계(툽 홉킨스/이덕형 옮김)
김희진(1984)/범우사	· 이 책을 읽는 분에게 · 작품론

정홍택(1992)/소담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와 작품 해설 · 작가 연보
김성운(1994)/홍신문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해설 · 작가 연보
최윤영(1994)/해원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지오웰의 생애와 작품 세계 · 조지오웰 연보
도정일(1998)/민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해설(동물 농장의 세계)/작가 연보)
박경서(2006)/열린책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해설(조지오웰의 정치적 글쓰기와 동물 소설) · 조지오웰 연보
최희섭(2008) /뽕컨클래식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손영도(2008) /고려대학교 출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해설 · 작가 연보

앞서 제시된 표에서 보듯이 번역본에 추가된 결텍스트의 유형을 살펴보면, 역사서문이나 후기, 작가와 작품세계, 작가 연보 등이 주를 이룬다. 『걸리버 여행기』의 송낙현(1999), 류경희(2003) 번역본이나 『동물농장』의 김병익(1972, 1999), 김희진(1984) 번역본의 결텍스트인 역사 서문이나 역사 후기는 이외 나머지 번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작품해설, 작가의 생애와 작품, 작품론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텍스트 내의 알레고리를 현실세계의 풍자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번역본 내에서 이런 결텍스트들은 원천문화의 독자들과 저자가 공유했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목표문화 독자들에게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작품과 독자, 저자와 독자, 저자의 메시지와 독자, 현실과 허구의 세계의 중재를 시도한다. 『걸리버 여행기』나 『동물농장』의 번역본을 접하는 목표문화의 독자들은 원문의 결텍스트들을 통해서 저자의 메시지, 즉 집필 의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안내를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설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허구라는 보조관념의 세계가 투영하고자 하는 원관념, 즉 현실의 세계를 원문 텍스트와 이를 둘러싼 결텍스트들만으로 파악해내기는 어렵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원천문화의 독자들 또한 알레고리가 표상하는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화, 특히 동일한 문학적 전통에 노출되어 있는 원천문화의 독자의 상황을

그렇지 못한 목표문화의 독자의 상황에 비견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보편적으로 번역을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문자적 전이 상황이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상황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원관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거나 원관념을 유추해내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은 번역본은 앞서 언급한 등가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절름발이 생산품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에서 두 작품의 번역본들은 원문의 결텍스트 이외에 추가적인 결텍스트, 즉 역자서문이나 후기, 작가와 작품세계, 작가 연보 등을 첨가하여 저자의 의도는 물론이거니와 풍자소설에 묘사된 보조관념이 현실세계에서 무엇을 대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대다수 번역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분석대상 번역본들 중 각 한편에서 발췌한 것들로 결텍스트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가늠할 수 있다.

“제1부 ‘작은 사람들의 나라’는 명백한 사실적 용어로 서술된 소인국의 거인에 관한 공상적 내용으로 뒤어지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앤 여왕 치하의 실정(失政)에 대한 시사적인 풍자가 넘쳐흐르고 있다.

제2부는 ‘큰 사람들의 나라’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와는 정반대이다. 이곳에서 그는 조국인 아일랜드 국민의 행동과 이상국가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어 스위프트의 냉철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제3부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에서는 그 당시의 과학자와 철학자가 현실과 반대로 말하고 있음을 명백히 꼬집고 있다.

제4부 ‘말들의 나라’는 인간 본질 자체에 있어서의 부도덕이나 잘못을 바로 잡는 풍자로 일관되고 있다.” (박정미 옮김 1993: 451, 작품해설 중 일부)

『걸리버 여행기』는 앤 여왕 통치기에 영국 국교인 성공회 신부로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스위프트가 정치적 변화기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야망이 꺾인 후 느끼게 된 좌절감과 분노가 날카롭고 풍자적인 스타일로 구체화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Knowles 1996: 3-28). 1993년 박정미 번역본의 결텍스트인 ‘작품해설’에서는 시공간의 간극으로 인해 원문의 결텍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물농장』의 8개 번역본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 소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부터 1943년 테헤란 회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러시아 역사에 걸친 정치문제를 다루고 있다(중략) 각 동물들과 사건들이 실제로 당대 어떤 인물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돼지들

거대한 러시아 관료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 지식인들을 가리킨다.

나폴레옹

동물농장에서 존스씨를 쫓아낸 후 동물 공화국을 세운 중심인물로 러시아 혁명기의 스탈린을 가리킨다(후략).” (박경서 옮김 2006: 176-183, 작품해설 중에서)

조지오웰이 동물우화의 방식을 통해서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동물농장』을 집필했다는 것은 이미 앞서 다양한 원문 결텍스트를 통해서 주지한 사실이다. 그러나 원문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전제, 즉 우화 속 현실이 표상하는 원관념을 독자가 인지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적용할 수 없는 목표문화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번역문의 ‘작품해설’이나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 등을 통해서 우화 속 알레고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두 작품의 번역본 결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작가연보’에는 작가의 개인적 사생활 및 공적 생활을 기록되어 있다. 한 개인의 사적 공적인 삶이 작가의 작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반론의 제기할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스위트트나 오웰 모두 특정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작품을 통해서 대중에 알리고 계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작가연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작가 모두 정치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 활동에 주력했음을 연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작가 연보를 접한 독자는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작품 속에 저자의 정치적 사상이 녹아 있음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본문을 다 읽고

나서 혹은 본문의 내용을 읽기 전 등과 같이 연보를 읽는 순서는 독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접한 저자의 반응은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즉, 연보에 주어진 정보를 작품의 내용과 저자의 집필 의도 등과 연계해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보를 읽지 않은 독자의 경우, 이와 같은 결텍스트가 갖고 있는 기능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반론의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번역본을 생산하는 번역의 주체 입장에서 결텍스트의 활용 측면에 맞춰져 있으므로 독자의 반응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작가 연보라는 결텍스트는 조나단 스위프트와 조지오웰이 풍자소설의 형식을 빌려 세태풍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사회적 맥락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틀로서의 기능과 저자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번역본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대표적인 정치 풍자소설 두 편의 번역본에 포함된 결텍스트들을 원문 결텍스트와 번역문 결텍스트로 나누어 그 유형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두 작품은 전반적인 작품의 내용이 정치적 풍자에 할당되어 있어 초기 출판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중재를 위한 결텍스트의 유형이나 기능, 즉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8편의 『걸리버 여행기』번역본과 9편의 『동물농장』번역본들 중 원문 결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스위프트의 작품의 경우 단 한편도 없었으며, 오웰의 작품의 경우는 1984년 김희진 번역본을 비롯해 4편이었다. 원문의 결텍스트 유형은 주로 작가 서문, 작가의 서한, 편집자의 서한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자의 작품 집필의도를 때론 온건한 톤으로 때론 직접적이고 격렬한 톤으로 전달하여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내용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두 작품의 번역본 17편을 살펴본 결과, 원문 결텍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이 추가된 번역본의 결텍스트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된 결텍스트가 없는 번역본은 『걸리버 여행기』의 경우 정병조(1956)본과 『동물농장』의 최희섭(2008)본이 유일했다. 번역본에 추가된 결텍스트의 유형은 역자 후기(서문), 작품해설이나 작가 소개(생애), 작가연보가 그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된 기능은 원문 결텍스트를 보완하고, 동시에 풍자소설 속의 알레고리가 지시하는 상징이 현실세계에서 명확하게 무엇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텍스트는 단어의 의미가 지시하듯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된 부분은 아니나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로 채워져 있는 중재의 공간임을 부인하는 이는 거의 없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결텍스트의 기능이 함축하는 바는 풍자소설의 경우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원천텍스트의 독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회·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단절된 목표문화의 독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매개의 수단을 제공하며, 이해의 틀을 한정하는 등 독자의 읽기 경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풍자소설의 결텍스트는 저자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접근과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4(2): 65-102.
- 김옥동 (2012)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다시 읽다』, 서울: 이숲.
- 나병철 (1998) 『소설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 신세니, 안지성 (2012)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번역에서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변형 연구」, 『유아교육연구』 32(3): 73-100.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

- 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3): 247-76.
- 최수경 (2012) 「청중기 ‘소설책’ 형태의 변화: 책의 크기와 파라텍스트(paratext)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54: 265-97.
- 최혜실 (1986) 「채만식 풍자소설 연구: 대화의 의미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1: 227-49.
- Appel, Markus and Maleckar (2012) ‘The Influence of Paratext on Narrative Persuasion: Fact, Fiction, or Fak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8: 459-84.
- Armstrong, Jean (1985)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Basingstoke: Macmillan
- Calder, Jennie (1987) *Animal Farm and Nineteen Eighty-Four*, Milton Keynes, Englan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Kim, Shin-Hee (2008) ‘Use of Orwell’s Literary Persona as a Political Engagement in Translation of *Animal Farm*’,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4): 315-47.
- Kinsler, Samuel (1990) *Rabelais's Carnival: Text, Context, Meta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nowles, Ronald (1996) *Gulliver's Travels: The Politics of Satire*, New York: Twayne Publishers.
- Genette, Gerard (198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ffman, Erving (1986)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Maclean, Marie (1991) ‘Pretexes and Paratexts: The Art of the Peripheral’, *New Literary History* 22(2): 273-79.
- Nelson, Kristopher (1998) ‘A Pretext for Writing: Prologues, Epilogues, and the Notion of Paratext’, <http://ssrn.com/abstract=1141062>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ranslated by

Erroll F. Rhodes, Manchester, U.K.: New York: St. Jerome Pub.;
American Bible Society.

Smyer, Richard I. (1988) *Animal Farm: Pastoralism and Politics*, Boston:
Twayne Publishers.

<분석대상 텍스트>

- 권지현 옮김 (2005) 『걸리버 여행기』 서울: 주변인의 길
- 류경희 옮김 (2003) 『걸리버 여행기』 서울: 미래사
- 박정미 옮김 (1993) 『걸리버 여행기』 서울: 청목사
- 송낙헌 옮김 (1999) 『걸리버 여행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현철 옮김 (1992) 『걸리버 여행기』 서울: 문학수첩
- 유영 옮김 (2012) 『걸리버 여행기』 서울: 동서문화사
- 이동진 옮김 (2001) 『걸리버 여행기』 서울: 해누리
- 정병조 옮김 (1956) 『걸리버 여행기』 서울: 한일문화사
- 김병익 옮김 (1972; 1999) 『동물농장』 서울: 문예출판사
- 김성운 옮김 (1994) 『동물농장; 1984』 서울: 홍신문화사
- 김회진 옮김 (1984) 『동물농장; 1984』 서울: 범우사
- 도정일 옮김 (1998) 『동물농장』 서울: 민음사
- 박경서 옮김 (2006) 『동물농장』 서울: 열린책들
- 손영도 옮김 (2008) 『동물농장』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홍택 옮김 (1992) 『동물농장』 서울: 소담출판사
- 최윤영 옮김 (1994) 『동물농장; 1984』 서울: 혜원출판사
- 최희섭 옮김 (2008) 『동물농장: 우화 이야기』 서울: 팽귄클래식 코리아

[Abstract]

**The Functioning and Features of Paratexts in Translated Satirical Novels:
Focusing on *Gulliver's Travels* and *Animal Farm***

Han, Misun

(Ewha Womans University)

Satirical novels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clear intention and allegories employed within the texts. When working on satirical pieces, authors tend to assume that their expected audiences or readers should recognize allegorical objects used in the fictional world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ings of the real world. This is the very premise for satirical novels to be read properly. However, the assumption can apply only to the audiences of novels produced in the original culture who share the same spatial and temporal context with the author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unique characteristics of satirical novels. The authors of the original can not expect that the very assumptions required for a certain satire to be read properly can also apply to the audience in the target culture. That is because different time and space factors are at work between the authors and their audiences. Taking these disparities into account,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various forms of paratexts in translation can make up for the inapplicability of the aforementioned premise caused by these differences, thus mediating between the author in the original culture and the reader in the target culture or the fictional world and the real world. To that end, this study examines how paratexts are utilized in translated satirical novels by analyzing their forms and characteristics in translated versions of two typical satirical novels: Jonathan Swift's *Gulliver's Travels* and George Orwell's *Animal Farm*.

▶ Key Words: satirical novels, allegory, paratexts, equivalence, author's intention, message

한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 번역과 겸임교수

ericka0312@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문체), 영상번역, 기술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